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연구에서 언제나 주체를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력사를 연구하고 학습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적립장을 지키는것이다.

그러자면 모든 력사적문제들을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연구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어떤 력사적사실을 하나 놓고도 우리 력사가 자랑스럽고 우리 민족이 슬기롭다는것을 찾아볼줄 알며 거기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줄 아는것이다.

례하면 조선사람은 북쪽의 씨비리나 남쪽에서 사람들이 이동해와서 생겨났다고 하는 반동적인 궤변에 타격을 주고 조선사람은 원래부터 이 땅에서 발생하고 가장 일찌기 나라를 세웠으며 모든 력사발전단계들을 거쳐왔다는것을 알고 거기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것이다.

력사학습에서는 또한 지난날의 사실들을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 옳은가 그른가, 오늘의 우리 시대에 비추어보면 어떠한가를 잘 가려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요구를 지켜야 력사학습을 옳바로 할수 있고 그것이 조선혁명에 참답게 이바지될수 있다.

6학년 조선력사에서는 19세기 중엽 미국침략선 《셔먼》호의 침입을 격퇴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되는 조선근대력사의 마지막부분을 배운다.

이와 함께 1920년대 반일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 대해서 배운다.

우리는 6학년에서 배우는 조선력사과목에서도 외래침략자들과 반동적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우면서 력사발전을 추동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야만적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워왔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第1장. 일제의 조선강점, 반일의병투쟁과 애국문화운동

第1절. 1905년 일제의 조선강점

1.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19세기말 외래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사대주의에 물젖은 부패무능한 리조봉건통치배들은 큰 나라들을 등에 업고 당파싸움만 일삼았다.

그러다나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래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군대가 왕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였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안에서 일본테로단의 칼에 맞아죽고(을미사변) 왕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1년동안이나 억류되여있는가 하면(아관파천) 임금의 당아버지가 외국에 랍치되여가서 귀양살이를 해도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항의는 고사하고 사죄를 해야 하는 판국이였다.

그러면 일본놈들이 민비를 살해한 을미사변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청일전쟁후 로씨야와 일본은 조선을 틀어쥐기 위하여 서로 치렬한 암투를 벌리였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제국주의렬강들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지위가 로씨야보다 약화되였다.

이전부터 일제의 횡포한 내정간섭에 대해 위구심을 가지고있던 민비일파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봉건정부안에서 친일세력을 제거하고 친로파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민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조선침략야욕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1895년 8월 15일 미우라공사놈은 살인악당들과 함께 공사관 비밀회의실에서 민비를 죽여없애버릴 음모를 꾸미였다.

그래야 친일파가 득세하여 조선침략을 쉽게 할수 있다고 타산하였기때문이였다.

드디여 8월 19일 밤 활동을 개시한 놈들은 20일 새벽 미우라놈의 조종밑에 일본수비대, 경찰, 불량배 등 수백명의 살인악당들로 불의에

왕궁을 습격하여 국왕을 감금해놓고 민비를 붙잡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민비는 비록 인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였지만 한 나라의 왕비인것만큼 그에 대한 학살만행은 국가주권에 대한 극악한 침해행위이며 민족적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유린행위였다.

일제는 그후 사건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넘겨씌우는 한편 40여명의 진범인들을 일본 히로시마감옥에 끌어갔다가《증거불충분》이라는 구실을 붙여 다 놓아주었다.

력사적으로 일제는 이런 놈들이였다.

외래침략으로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 사건은 꼬리를 물었다.

이해 10월 11일 밤에는 미제침략자들이 왕궁을 습격하여 국왕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친미정권을 조작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춘생문사건 또는 영춘문사건이라고 한다.

을미사변과 춘생문사건을 계기로 인민들과 봉건정부의 반일반미감정이 높아지자 짜리로씨야는 그것을 리용하여 친로정권을 조작하려고 하였다.

1896년 2월 11일 로씨야공사 웨베르는 리완용 등 친로파들과 짜고들어 국왕과 왕세자를 로씨야공사관으로 유인해냈다. 그리고는 국왕을 강박하여 친로정권을 조작하고 친일파들을 정권에서 몰아냈다.

로씨야공사관에 들어가있던 국왕과 그 아들은 로씨야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년만에야 왕궁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19세기말－20세기초에 우리 나라는 제국주의렬강들의 치렬한 세력권쟁탈장으로 되였다. 그중에서도 일본제국주의가 제일 기승을 부리였다.

2. 일제의 조선강점과 《조약》날조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의 길을 열기 위해 1904년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다음해에 조선에서 로씨야세력을 몰아내고 수만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강점하였다. 그리고 이를 합법적인것처럼 만들기 위해《조약》날조놀음에 매여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19세기말부터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왔으며 1905년에는 가쯔라와 타프트의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일제의 조선강점을 도와주었습니다.》

미제는 일제의 조선강점을 적극 도와주었다.

1905년에 미륙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쯔라는 비밀회담을 열고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승인하고 미국은 일본의

조선강점을 서로 승인하였다. 영국도 일제의 조선침략을 지지해주었다. 미영제국주의의 이러한 지지밑에 일제는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드는데 달라붙었다.

1905년 11월 일제는 천황의 특사로 이등박문(이또 히로부미)을 조선에 들여보냈다.

이등박문놈은 국왕 고종에게 일본《천황》놈의《칙서》(편지)를 전하였다. 칙서에서 일제는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안전을 위하여 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뇌까렸다. 조선이 일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이등박문놈은 고종에게 이미 꾸며가지고 온 을사5조약초안을 내놓으면서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

5개 조항으로 된 조약초안은 조선의 외교사업을 일본이 감리, 지휘하며 조선정부는 일본정부의 승인없이 다른 나라와 그 어떤 조약도 맺을수 없다는것, 일본은 조선에 통감을 보내여 통감통치를 실시한다는것 등의 침략적내용으로 되여있었다.

고종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 곧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기때문에 죽을지언정 승인할수 없다고 잡아떼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침략군대를 몽땅 풀어 서울시안의 골목들에 늘여놓고 왕궁을 포위하여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국왕의 승인도 없이 조약을 토의하는 대신들의 회의를 하게 하였다.

이때 이등박문놈은 일본공사, 일제침략군사령관 등과 함께 왕궁에 기여들어 옆방에서 회의를 감시하였다.

회의는 처음부터 일본놈들이 바라는대로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이등박문놈은 아무 꺼리낌없이 회의장에 달려들어 주인노릇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놈은 여러 대신들을 찍어가며 조약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따지면서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이때 매국역적들인 학부대신 리완용, 내부대신 리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리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이 조약을 지지하였다. 이 다섯놈의 매국역적들을 을사5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리하영 등

은 조약체결을 견결히 반대하였다.

조선의 자주권, 조선사람의 권리가 왜놈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조약에 찬성할수 없었던것이였다.

이렇게 되자 위협과 회유로 조약을 꾸며내려던 이등박문놈은 한규설을 회의장밖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조약이 체결되였다고 제멋대로 공포하였다.

그러나 조약은 국왕의 승인과 수표도 받지 못했고 나라의 도장(국새)도 찍지 않은 허위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이 허위문서를 놓고 을사5조약이 체결되였다고 하면서 이때부터 41년동안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등박문을 첫 통감으로 들여앉혔다. 통감은 무제한한 권한을 틀어쥐고 마치 나라의 왕처럼 행세하면서 식민지통치를 강화해나갔다.

일제는 1907년 7월 매국역적 리완용을 부추겨 정미7조약(《한일협약》)이라는 또 하나의 침략조약을 날조하였다.

이 조약에는 조선에서 모든 정치적, 행정적조치와 법의 제정, 고등관리임명도 오직 통감의 지도와 승인밑에서만 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었다. 조선의 내정권을 송두리채 빼앗는 구실로 꾸며낸 이 문건 역시 국왕의 국새와 수표를 받지 못한것으로서 일제가 제멋대로 날조공포한 휴지장이였다. 일제는 이 조약날조 후 그 실행에 관한 각서를 만들어 조선군대의 해산권, 재판권,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의 관리임명권까지도 다 빼앗아냈다. 지어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을 빼앗기 위해 국왕의 수표까지 위조하면서 수십건의 법령, 칙령들을 날조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1907년 8월 1일 조선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단 한명의 자기 군대도 가질수 없게 되고 삼천리 조선땅에는 우리 인민을 총칼로 탄압하는 일본침략군이 뒤덮이게 되였다.

간악한 일제는 1910년 8월《한일합병조약》이라는 또 하나의 침략문건을 날조해냈다. 이 조약은 말그대로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합병한다는것인데 이것은 세계지도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없애는것이였다.

물론 이것은 일제가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던것과 다른 새로운것은 아니였다. 이미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모두 박탈하였던 조건에서 합병조약이라는 말조차 성립될수 없는것이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통감부를 총독부로 고친 다음 데라우찌놈을 첫 총독으로 들여앉히고 간악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해나갔다.

제2절. 반일의병투쟁

1. 반일의병투쟁의 시작과 중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외래침략자들과는 굴함없이 싸워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애국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19세기말～20세기초 우리 인민은 일제의 침략을 막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반일의병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반일의병투쟁은 갑오농민전쟁직후인 1895년부터 시작되였다.

농민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농민군의 일부는 산골에 들어가 일제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곳에서 활동하던 농민무장대들은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더욱 위태롭게 되자 반일의병부대를 뭇고 투쟁을 벌렸다.

애국적인 선비들도 여러 지방에서 의병부대를 뭇고 반일의병투쟁을 시작하였다.

1895년 7월 평안도 상원(오늘의 황해북도 상원군)에서 김원교가 조직한 의병부대는 상원읍으로 쳐들어가 악질관리들과 매국노들을 족쳤다. 그후 의병부대는 황해도방향으로 나가 장수산에서 봉건정부군과 싸우는 한편 인민들에게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의병투쟁은 1895년 8월 민비학살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였다.

애국적인 선비 류린석은 충청도 제천에서 이해말에 의병대를 조직하고 다음해초에 충청도의 중심지인 충주성을 포위공격하였다.

의병대는 일제침략군이 늘여놓은 전선을 모조리 끊어놓고 성을 불의에 공격하여 발악하는 적들을 소탕한 다음 성을 점령하였다.

의병대는 친일적인 도관찰사 김규식을 체포하여 죄행을 폭로한 다

음 처단하였다.

충주성을 빼앗긴 일제침략자들은 성을 도로 빼앗기 위하여 여러차례 발악적인 공격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호된 타격을 받고 쫓겨갔다.

적들은 성을 포위하고 의병들을 소멸하려고 하였다. 성안에는 무기와 탄약, 식량이 떨어지고 마실 물마저 모자랐다. 그러나 의병들과 인민들은 굴하지 않았다.

인민들은 자기 집 쌀로 밥을 해오고 탄약과 화살이 떨어지면 집집의 기와장을 내려다 적들을 족치게 하였다.

의병들은 불의에 성문을 열고나가 적들을 성벽까지 유인하여 돌벼락을 들씌우기도 하고 야간습격으로 무리죽음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싸움으로 의병대는 거의 한달동안이나 충주성을 틀어쥐고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였다.

류린석의병대는 《8도의 여러 고을에 호소한다》라는 격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전국각지에서 의병투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의병대에는 농민을 비롯한 피압박인민들이 참가하였으며 그 지휘층은 주로 애국적인 선비들이였다.

의병들의 무기는 화승총과 창, 낫, 몽둥이 같은 락후한것이였으나 곳곳에서 도시와 마을을 들이치고 일제침략군과 정부군에 타격을 주었으며 친일관리들과 앞잡이들을 처단하였다.

의병부대들은 서울을 포위하고 부산, 원산과 같은 큰 도시들도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 강원도이남지역의 통치체계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그러나 의병투쟁은 1896년이후 점차 중단되고 의병부대들은 해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봉건유생출신의 의병장들이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의병투쟁의 성과가 봉건통치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데 있었다.

류린석과 같은 선비출신의 의병장들은 아관파천을 계기로 국왕이 《란적은 소멸되였다》고 하면서 의병부대를 해산하라는 조칙을 여러번 내리자 의병부대들을 해산하고말았다. 란적이란 봉건통치층안의 친일세력을 말하는것이며 그것이 소멸되였다는것은 아관파천을 통하여 봉건정

부안에서 친일파가 밀려나고 친로파가 득세한것을 의미하였다.

2. 반일의병투쟁의 재발과 앙양

일시 중단되였던 반일의병투쟁은 1904년 로일전쟁을 계기로 다시 일어났다. 그것은 로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수많은 침략군을 우리 나라에 들이밀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였기때문이다.

1904년 7월 24일 서울에서 조선군인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의병대를 무은데 이어 2년동안에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각지에서 의병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의병투쟁은 특히 《을사5조약》날조를 계기로 급격히 앙양되였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의병부대들의 투쟁은 충청도의 민종식의병대, 전라도의 최익현의병대, 경상도의 신돌석의병대의 투쟁이였다.

1906년 3월 충청도 정산에서 조직된 민종식의병대는 5월에 1 000여명의 대부대로 일제수비대와 경찰대를 소탕하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헌병기관, 경무서, 우편국 등을 습격파괴하고 10여문의 대포를 비롯한 많은 무기와 탄약을 로획하였다. 의병대는 이어 서울로 쳐들어갈 준비까지 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적들은 서울과 수원에서 헌병대를 포함한 수많은 무력을 내몰아 10여일동안 여러차례 홍주성을 빼앗으려고 공격하였으나 무리죽음만 냈다.

이해 6월에는 전라도 순창지방에서 일흔살이 넘는 관리였던 최익현이 무기와 탄약을 마련하고 의병대를 조직하였다.

홍주성전투소식에서 커다란 고무적충격을 받은 그들은 순창, 담양, 곡성 등지에서 적통치기관들을 들부시며 맹렬히 활동하였다.

순창전투에서 의병대는 번개가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3면으로 포위공격해오는 적들과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희생적으로 싸웠다.

이 전투에서 적들에게 체포된 최익현은 그후 쯔시마류형지에 끌려가 일제의 온갖 위협과 회유도 다 물리치면서 단식투쟁을 벌리다가 희생되였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자기의 반일애국정신을 보여주었다.

이 몸을 일으키여 북두성 빛나는 조국을 바라보니
백수로 잡힌 몸의 통분함을 억제할수 없어라
만번 죽어도 적국의 부귀를 탐낼소냐
오로지 일생에 내 나라 잊지 못하노라

의병투쟁은 1907년 《정미7조약》의 조작과 조선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적규모에서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것은 함경도지방의 홍범도의병부대의 투쟁이였다.

포수들로 조직된 홍범도의병부대는 자체로 화승총의 탄약을 만들어 쓰면서 일제와 친일매국노, 일진회도당들을 련이어 족치였다.

1907년 11월 의병대는 후치령(함경남도 북청군—량강도 김형권군사이)에서 일제침략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여러번 벌리여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중에는 일제토벌대 미야베중대를 완전히 몰살시킨 통쾌한 전투도 있었다.

그후 1908년 1월에 갑산읍습격전투를 비롯하여 홍범도의병대는 1907년—1908년 8월까지 37차례의 전투를 벌리였다. 1909년 4월에는 후창읍(김형직군)을 들이쳐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의병대의 위력을 시위하였다.

당시 인민들은 홍범도의병대의 눈부신 활동을 찬양하여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불렀다.

홍대장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군대 가는 길에는 눈과 비가 내린다
에헹야 에헹야 에헹 에헹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이 시기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일대에서는 민긍호의병대가 맹활동을 벌리였다.

의병대는 1907년 여름 원주와 충주, 장호원 일대에서 각각 수백명이나 되는 적들을 소탕하였다. 이 전투에서 녹아난 적들의 시체를 싣고 양근강을 내려가는 배들이 꼬리를 물고 서울에 잇닿았다.

3. 의병부대들의 서울공격시도의 실패와 의병투쟁의 약점

이 시기 강원도에서 활동하던 의병장 리린영은 원주에서 각지 의병부대들에게 련합하여 서울로 쳐들어갈것을 호소하고 1907년 12월에 경기도 양주로 갔다.

양주에는 1만여명의 의병부대들이 모였다. 그들은 리린영을 13도의병도총재으로 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하여 서울 총공격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서울로 쳐들어가 통감부를 쳐부시고 일제가 날조한 을사5조약을 없애버리려고 하였다. 한편 리린영은 이때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감으로써 의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였다.

다음해 1월 대장의 직위를 넘겨받은 허위는 총공격에 앞서 300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서울 동대문밖 30리지점에 가서 기본부대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불의에 적들의 대규모공격을 받고 퇴각하게 되였다.

결국 의병들의 서울공격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의병투쟁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일제는 의병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방대한 군대와 헌병, 경찰무력을 내몰았다. 놈들은 의병을 잡으면 불태워죽이고 생매장해죽였다. 의병부대가 지나간 마을은 불사르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였다.

일제는 의병 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애국자들을 15만명이상이나 학살하였다.

일제의 토벌책동이 강화되자 의병부대들은 점차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지방으로 건너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였다.

1910년 6월 연해주에서 의병장들은 류린석을 13도의병 도총재로 하는 창의회를 뭇고 의병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제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던 반일의병투쟁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반일의병투쟁이 실패하게 된것은 우선 이 투쟁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는 비할수 없는 약점들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이 운동이 대부분 류린석, 최익현, 리린영과 같이 봉건적충군사상에 물젖은 유생출신의병장들에 의하여 지도되였다는데 있다.

류린석은 의병투쟁이 단결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승리할수 있

다고 본것이 아니라 봉건지배층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고 보면서 국왕이 의병부대를 해산하라고 하자 해산하고말았으며 리린영은 아버지장례때문에 큰 싸움을 제껴놓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봉건적도덕륜리에 충실한 사람들이였다. 이로부터 의병투쟁은 옳바른 사상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지도될수 없었다.

그 약점은 다음으로 의병투쟁이 통일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제가끔 분산적으로 벌어진것이다.

반일의병투쟁이 실패하게 된것은 다음으로 일제의 탄압이 극심했고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지어 국내반동통치배들도 일제와 한짝이 되여 의병투쟁을 탄압하였기때문이다.

반일의병투쟁은 실패하였으나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조선인민의 높은 반일애국정신을 보여주었으며 당시에 벌어진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는데 있다.

4. 헤그밀사사건과 안중근의 이등박문처단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였다.

당시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투쟁해오던 애국지사들인 리준, 리상설, 리위종은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일제의 비법적인 침략행위를 폭로하여 국제적여론을 불러일으킨다면 국권을 되찾을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리준은 국왕으로부터 이 회의의 조선대표라는것을 인정하는 밀서(비밀편지)를 받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이때 국왕 고종도 만국평화회의라는것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평화의 너울로 가리우기 위한 목적에서 열린다는것을 모르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였다.

국왕의 밀서를 받은 조선대표들은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수만리 머나먼 헤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일제대표놈들은 그들이 조선국왕이 보낸 조선대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확인한다고 조선통감부에 전보를 쳤다. 이때 조선의 전신전화체계는 다 일제가 장악했으므로 놈들은 조선에서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고 회답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도 일제와 한짝이 되여 리준일행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미일제국주의대표놈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회의에 기어이 참가하려고 여러가지 교섭과 활동을 다 벌렸으나 끝내 참가할수 없게 된 조선대표들은 그곳에 있는 국제기자협회연단과 출판물을 통하여 일제의 조선침략죄행을 준렬히 폭로규탄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 대표들이 그들을 동정하였다.

이에 바빠난 일제대표놈들은 미제의 부추김과 방조밑에 조선대표들의 활동을 악랄하게 방해하였다.

놈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국권을 되찾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벌리던 리준은 끝내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더는 참을수 없는 민족적의분에 넘쳐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자기의 배를 갈라 나라의 국권을 기어이 되찾으려는 조선민족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헤그밀사사건이다.

리준은 장렬한 죽음으로 일제의 침략성을 세계에 폭로하고 원쑤들에게 항거하였으나 빼앗긴 국권은 되찾지 못하였다.

결국 만국평화회의장을 붉게 물들인 리준의 피는 후대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경고해주었다.

1909년 10월 26일 애국렬사 안중근은 하얼빈(할빈)역에서 조선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을 격살하고《조선독립 만세!》를 높이 웨쳐 조선사람의 기개를 과시하였다.

일찍부터 황해도, 평안도일대에서 애국적인 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등을 벌리던 안중근은 연해주에 들어가 반일의병대를 뭇고 국내에도 들어와 투쟁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의 모든 투쟁들이 다 실패하는것을 본 안중근은 이등박문과 같은 개별적인 침략의 우두머리들을 처단하는것이 국권회복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였다.

면밀한 준비밑에 절호의 기회를 타서 이등박문을 처단한 안중근은 려순감옥에 갇혀서도 제일강산, 인내라는 글을 써붙이고 1910년 3월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애국적절개를 곳곳이 지키며 일제교형리들과 맞서 싸웠다.

안중근의 투쟁은 비록 일제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애국적투지를 과시하였으나 나라의 독립은 이룩하지 못하였다.

안중근의 투쟁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탁월한 지도자의 령도밑에 조직적인 혁명투쟁을 벌려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제3절. 부르죠아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

19세기말～20세기초에 우리 나라에서는 애국적지식인들에 의하여 반침략반봉건투쟁의 새로운 형태로서 부르죠아민권운동이 벌어졌으며 반일의병투쟁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면서 이에 고무되여 부르죠아민권운동과 애국문화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애국문화운동은 일제의 침략을 막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며 근대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민들을 깨우치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킬것을 목적으로 벌어진 운동이다.

이로부터 애국문화운동자들은 여러 정치단체들을 뭇고 정치투쟁을 적극 벌리는것과 함께 애국적인 출판활동, 교육운동, 국문운동 등을 벌리였다.

1. 독립협회와 독립문건설

1896년 7월 애국적지식인들은 서울에서 독립협회라는 정치조직을 내왔다. 독립협회는 나라의 독립을 지킬것을 투쟁목적으로 삼고 활동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근대적인 정치단체였다. 이 단체는 점차 로동자, 학생, 상인 등 각계각층의 군중들이 참가한 대중적인 정치단체로 발전하였다.

독립협회는 처음에 인민들에게 독립사상을 심어줄 목적으로 독립문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본래 서울에는 사대주의에 물젖은 봉건통치배들이 큰 나라에서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세운 영은문이 있었다.

애국적지식인들은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그자리에 독립문을 세우며 그 주변을 독립공원으로 꾸리기로 하였다.

나라의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이 건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민들은 한결같이 지지하여 원호금을 바치였다.

그리하여 독립문은 건설을 시작한지 1년만인 1897년에 완공되

였다.

독립협회는 독립문주변에 독립공원을 꾸리고 사대외교의 유물인 모화관을 독립회관으로 고치였다.

독립협회가 조직된 후 서울에서는 학생들의 조직인 협성회를 비롯한 여러 정치단체들이 조직되였다.

이러한 정치단체들은 《독립신문》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발간하고 학교들을 세워 근대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문화활동을 벌리였다.

2. 만민공동회투쟁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민족적독립을 지키며 봉건적예속을 반대하는 대중적정치투쟁으로서 만민공동회투쟁을 조직지도하였다.

1898년 3월 9일 서울의 종로네거리에서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지도밑에 청년학생들과 도시빈민, 로동자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이 만민공동회라는 군중집회를 열었다.

모임에서는 외래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폭로한 다음 군중들의 요구를 담은 항의문을 봉건통치배들에게 들이대여 그것을 관철시켰다.

10월 7일 서울시민들은 또다시 만민공동회를 열고 7흉으로 불리우던 악질적인 관료배들을 봉건정부의 대신자리에서 내쫓으며 갑오개혁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실천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투쟁은 6일간이나 계속되였다.

그러나 봉건정부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 군중집회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리였다. 이러한 탄압조치에 맞서 군중들은 10월 29일 보다 큰 규모의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수만명의 시민들과 10여개의 정치단체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지어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10여명의 봉건정부대신들까지 끌려나왔다.

군중들은 봉건통치배들의 학정과 매국행위를 날카롭게 폭로규탄한 다음 나라의 독립을 지키고 썩은 정치를 고치며 근대적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6개 조항의 결의안을 봉건정부에 들이댔다.

이에 바빠난 봉건정부는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앉아서는 17명의 주요 인물들을 잡아가두고 폭력으로 집회를 탄압해

나섰다.

격분한 군중들은 11월 5일 또다시 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투쟁이 아니라 폭력투쟁으로 넘어갔다.

이에 바빠난 국왕까지 군중들앞에 나타나 그들을 얼리는 놀음을 벌리였다.

만민공동회투쟁은 힘차게 벌어졌으나 반일의병투쟁과 마찬가지로 옳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여 결국은 실패하고말았다.

3. 헌정연구회의 활동

1905년 5월에 리준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은 헌정연구회라는 정치단체를 조직하였다. 헌정연구회는 나라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립헌군주제를 실시할것을 투쟁목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군중강연, 모임과《황성신문》을 비롯한 출판물을 통하여 립헌군주제를 실시할 필요성과 그 내용을 해설선전하였다.

또한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나 헌정연구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해산되였다.

4.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활동

1906년 3월 장지연 등 애국문화운동자들은 대한자강회라는 합법적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전 민족이 힘을 합치고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키며 근대문명을 받아들여 자체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할것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대한자강회는 먼저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도들을 토의결정하였으며 잡지를 발간하고 강의, 강연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애국정신을 심어주며 사회정치지식과 근대적인 과학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일제가 소학교 교과서들을 일본글로 만들것을 강요하였을 때 그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대한자강회는 1907년 8월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고 11월에 그를 직접 이은 합법적정치단체인 대한협회가 조직되였다.

이 단체는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국권을 회복하며 일진회를 때려

부실것을 목표로 투쟁하였다.

대한협회는 기관잡지 《대한협회회보》를 발간하여 우리 나라 력사와 애국명장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본받아 반일애국투쟁에서 용감히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동시에 일제의 토지략탈을 비롯한 경제적략탈과 그 후과에 대하여 폭로하였다.

5. 신민회의 활동

1907년 9월 량기탁, 신채호 등은 비밀정치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신민회는 일제와 일진회, 을사5적을 비롯한 매국역적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또한 반일의병투쟁소식 특히 승리한 전투들을 신문에 소개선전하면서 일제의 악독한 학살만행을 폭로하였다.

신민회의 활동은 일제와 친일주구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크게 고무하였다.

6. 언론출판활동

박은식, 신채호, 주시경을 비롯한 애국문화운동자들은 이미 발행되여오던 《황성신문》, 《제국신문》과 함께 새로 《대한매일신보》, 《조양보》 등 많은 신문, 잡지들을 발간하여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인민들을 반일투쟁에 불러일으켰다.

《황성신문》은 을사5조약날조직후에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소리내여 크게 통곡하노라)이라는 장지연(이 신문사 사장)의 론설을 발표하여 《을사5조약》의 날조과정과 그 내막을 폭로하였다.

다른 신문들도 한결같이 이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죄행과 매국역적들의 죄행이 세상에 널리 폭로되고 인민들의 반일투쟁기운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바빠난 일제는 《황성신문》을 강제로 폐간시키고 장지연을 잡아가두었다.

이렇게 되자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은 일제의 탄압만행과 장

지연이 감옥에서 굴하지 않고 싸우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일제는 하는 수없이 장지연을 내놓고 《황성신문》도 다시 발간하게 하였다.

애국문화운동자들은 또한 신문, 잡지들에 나라안팎의 새 소식들을 싣고 을지문덕, 강감찬, 리순신과 같은 애국명장들의 전기를 비롯한 많은 력사책들을 출판보급하였다.

이와 함께 근대적인 국가를 세워야 할 필요성과 그 방도, 민족산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것을 강조하였다.

7. 교육운동

애국문화운동자들은 국권을 잃게 된 근본원인이 나라의 후진성에 있다는것을 깊이 느끼고 교육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독립도, 사회의 근대화도 실현할수 없다고 하면서 도처에서 사립학교운동을 벌렸다.

사립학교운동의 앞장에는 안창호, 리동휘, 리승훈, 리상재, 유길준, 남궁억과 같은 계몽운동자들이 서있었다. 각 지방에 조직되여있던 서우학회를 비롯한 학회들도 교육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당시 배움에 대한 열망이 남달리 높았던 우리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사립학교를 세우는 일을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1907년에 사립학교수는 3천여개나 되였다.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안악의 양산학교, 강화도의 보창학교 등은 이 시기에 세워진 대표적인 사립학교들이였다.

사립학교들에서는 국어, 력사, 지리, 수학, 리학, 생물, 농학, 상업, 법제, 체육, 창가 등의 과목들을 배워주었다. 이러한 과목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반일애국사상과 근대적인 경제와 문화발전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을 가르쳐주고 체력을 단련시켰다.

사립학교운동과 함께 도시와 농촌에 수많은 야학이 세워져 로동자, 농민들이 글을 배우고 애국심을 키워나갔다.

8. 국문운동

애국문화운동자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문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그들은 우리 말과 글을 꾸준히 연구하여 《말의 소리》를 비롯한 많은 책과 문학작품들을 써서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인민들의 반일애국정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9. 국채보상운동

애국문화운동의 흐름속에서 애국적인민들은 일본놈들이 우리 나라에 들씌운 빚을 갚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벌렸다.

1907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애국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급속히 확대되였다.

로동자들은 한푼두푼 피땀으로 번 돈을 의연금으로 바치고 농민들은 식량을 팔아 국채보상금으로 바쳤다.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녀자들은 반찬가지수를 줄여 절약한 돈을 냈으며 지어 가락지와 비녀, 시집올 때 가지고온 옷가지까지 서슴없이 팔아 국채보상금을 마련하였다.

아이들도 나무를 하거나 조개를 잡아 돈을 마련하였다. 이 운동은 해외동포들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책동으로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나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 인민의 애국정신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안겨주었다.

제2장. 1919년 3.1인민봉기

제1절.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잔인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1910년대에 일제는 조선에서 세상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독한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총독정치는 그 이전시기의 통감정치와 마찬가지로 무단통치였으나 그것은 더 악랄하고 잔인무도한것이였다.

무단통치란 총칼로 무지막지하게 다스리며 통치하는것을 말한다.

일제는 무엇보다먼저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새로 꾸리고 폭압기구를 정비강화하였다.

새로운 식민지통치체계에서 최고우두머리는 총독이였다. 총독은 봉건시대의 전제군주와 같은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제 마음대로 처리할수 있었다. 총독으로는 일본륙해군대장가운데서도 가장 포악한 놈들이 뽑혔다.

총독부의 밑에는 지방에 도청, 부청, 군청, 면사무소 등 식민지통치체계를 꾸려놓고 가장 악질적인 일본놈들을 그 우두머리로 임명하였으며 무제한한 권한을 주었다.

놈들은 마치 조선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일부 친일분자들을 등용하였으나 그들은 아무런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였다.

새로 세워진 식민지통치기구는 조선을 완전히 일본화하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한편 일제는 폭압기구들을 대대적으로 늘였다.

우선 가장 포악한 헌병경찰제도를 내왔다. 놈들은 군사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헌병과 민사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하나의 기구체계로 만들고 폭압기구를 대대적으로 늘였다.

결과 1918년에 전국적으로 거의 2 000개의 헌병경찰기관들이 설치되였으며 여기에 조선인민들을 마음대로 처벌할수 있는 온갖 권한을 다

주었다.

일제놈들은 이것도 부족하여 일본인일반관리들과 소학교 교원들에게까지 경찰복 비슷한 옷을 입히고 칼까지 채워 인민들과 학생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식민지나라들에 이처럼 포악한 폭압기구를 꾸려놓은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일제놈들은 또한 조선강점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늘였다. 놈들은 서울, 라남에 2개 사단의 륙군을 배치하고 원산만과 진해만에는 2개의 해군부대를 두었다.

일제놈들은 전국각지에 감옥과 재판소들도 대대적으로 늘였다.

이리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감옥과 류치장들이 늘어서고 거기에 제놈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조선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마구 잡아들였다. 그리고는 각종 악법들을 무데기로 만들어내여 조선인민의 손발을 완전히 얽매여놓았다. 일제는 이처럼 식민지통치체계를 정비하고 폭압기구들을 꾸려놓은데 기초하여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첫 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놈은《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떠벌였는데 이것은 그후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지침으로 되였다.

조선인민들이 민족적으로 각성되고 단합되는것을 제일 두려워한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털끝만 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도 주지 않았다.

놈들은 우선 조선사람들이 조직한 단체들을 모조리 해산해버리고 새로운 단체들을 조직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놈들은 조선사람들이 모임을 제대로 가질수 없게 만들었다.

정치적성격을 띤 모임은 물론 종교를 선전하는 모임이나 지어 운동회와 같이 학생들이 집체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조차 미리 경찰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수 있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언론, 출판활동에 대한 탄압도 강화하였다.

1910년 한해동안에 놈들이 강제로 없애버렸거나 찍어내지 못하게 한 출판물은 그 종류가 225가지나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사람은 입이 있어도 마음대로 말할수 없었고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체 해야만 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애국자들과 죄없는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학살하였다.

놈들은 조금이라도 제놈들을 반대하는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 잡아

가두고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놈들이 얼마나 조선의 애국자들을 잡아가두기에 날뛰였는지 그 수가 1912년에는 5만 2천명이였던것이 1918년에는 무려 14만 2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리하여 조선은 하나의 철창없는 감옥으로, 인간생지옥으로 변하였다.

일제는 이처럼 류례없는 폭압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조선인민에게서 민족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날뛰였다.

놈들은 무엇보다먼저 조선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공공장소에서 쓰는 말은 모두 일본말로 해야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조차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하였다. 일체 출판물과 문서들도 일본글로 써야 했다.

놈들은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을 만들어내여 애국적인 교원들을 학교에서 내쫓고 사립학교들을 무데기로 없애버림으로써 조선사람들의 배움의 길을 막아버렸다. 학교에서는 조선의 력사와 지리, 조선어대신 일본력사와 지리, 일본어를 배워주는 등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또한 우리 나라의 력사를 제놈들의 식민지통치에 유리하게 제멋대로 위조하고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닥치는대로 마스거나 빼앗아갔다. 놈들은 우리 나라의 옛 무덤들을 거의 다 뒤지여 귀중한 유물들을 훔쳐갔으며 이름난 유적들도 마구 파괴하였다.

일제놈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적략탈도 더욱 강화하였다.

무엇보다 토지를 대대적으로 강탈하였다.

놈들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밑에 100여만정보의 땅을 이른바 국유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토지신고제에 제때에 응하지 못하면 주인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강도적인 방법으로 빼앗아냈다.

이렇게 빼앗은 토지를 제놈들의 토지회사의 하나인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를 비롯한 일본인회사나 일본인지주놈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리하여 조선에서 총독부와 일제의 토지회사들, 일본지주놈들이 최대의 지주로 되였다.

일제는 또한 회사령, 광업령 등 악법들을 만들어 민족기업의 장성을 막고 일본자본가들이 마음대로 공장, 광산들을 세울수 있게 함으로써 조선의 산업을 일본놈들이 독차지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금, 은, 쇠돌, 석탄을 비롯한 조선의 지하자원들을 마음

대로 빼앗아가게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략탈정책으로 조선의 경제는 일본의 예속경제로 되고 우리 인민들은 더욱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였다.

제2절. 1910년대 반일독립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망국후 10년동안에 국내에서는 일제의 폭정하에서 비밀결사와 애국문화운동 등으로, 국외에서는 혁명단체들의 조직 또는 반일투쟁으로 민족해방운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였습니다.》

1910년대 반일독립운동은 반일의병투쟁, 독립군운동, 반일정치운동, 애국문화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였다.

1. 반일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의 준비

이 시기의 반일의병투쟁은 이전보다는 약화되였으나 의연히 계속되였다.

일제의 야수적인 폭압으로 적지 않은 의병부대들이 해산되거나 동북지방으로 자리를 옮긴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내의 여러곳에서 의병투쟁이 계속되였다.

황해도 곡산에 있는 백년산에 본거지를 정하고 활동하던 채응언의 의병대는 1910년 9월 이천군 광북리에 도사리고있던 일제 수비대를 들이쳐 적 100여놈을 살상하고 수많은 무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다음해초에는 함경남도 안변군(오늘의 강원도 안변군)에 진출하여 석왕사에 둥지를 틀고있던 일제 수비대를 습격하고 뒤따라오는 적들에게 련이어 된벼락을 안기였다. 그후 다른 의병대와 합세하여 200여명으로 늘어난 의병대는 1913년 6월 황해북도 신평군 선암리의 병참을 습격하여 여러놈의 일제헌병들을 처단하고 많은 무기를 빼앗아내는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김정환이 거느린 평산의병대는 평산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드나들면서 일제의 헌병기관들을 들이치거나 철도를 파괴하는 등 맹렬한 활동을 벌리였다.

1910년 가을에는 재령 장수산에 진을 치고있다가 여러겹으로 포위하고 기여오르는 적들에게 된벼락을 안기였다. 1914년 3월에는 또다시 장수산에서 적의 토벌대를 무찔렀으며 5월에는 서흥 제비여울병참에

대한 대담한 기습전을 벌려 적들을 소멸하였다.

악에 받친 일제놈들은 평양에 있던 군대까지 동원하여 서흥지방에 있던 평산의병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벌렸다.

겹겹으로 포위된 어려운 환경속에서 의병들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힘겨운 전투를 벌렸으며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웠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간 의병들도 지엔다오를 비롯한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일대에서 투쟁을 계속하였다.

한편 일제의 야만적인 군사적폭압이 강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종래와 같은 산만하고 우발적인 의병운동이나 애국문화운동만으로는 결코 민족적독립을 달성할수 없다고 생각한 애국지사들은 반일독립군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일대에로 활동무대를 옮긴 의병장들과 신민회의 성원들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이 제각기 독립군을 뭇기 위한 준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독립군운동의 준비사업에서는 독립군의 인재양성과 무기구입이 기본으로 되였다.

량기탁, 오동진, 리동휘, 김규식 등 애국적지식인들이 세운 신흥강습소, 동림무관학교,스리핑사관학교(왕칭현),샤오사하훈련소(안투현), 화성의숙(화디엔현) 등과 의병장계렬의 홍범도가 조직한 포수단, 서일등이 조직한 중광단》등에서는 제각기 독립군운동을 위한 군사간부들을 길러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에게 군사교육과 정치교육을 주었는데 정치교육에서는 민족주의사상을 기본으로 하였다.

무장장비는 군자금을 모집하여 필요한 무기를 사들이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적들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난만과 둥만일대에서는 독립군운동을 벌릴수 있는 일정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군운동준비는 그것을 담당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제한성으로 하여 서로 뿔뿔이 분산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인민대중과 동떨어져 진행된것 등 본질적인 결함들이 있었다.

2. 독립운동단체의 조직과 애국문화운동

국내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는 이전에 의병장으로 활동하던 림병찬이 1912년 10월 전라북도에서 조직한 독립의군부를 들수 있다.

전라북도일대에서 자기들의 조직을 확대한 이들은 일본놈들에게 국권을 반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일제놈들과 그 앞잡이들을 처단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국외에서 조직된 정치단체들은 광복회, 중광단을 대표적으로 들수 있다.

광복회는 1912년 애국문화운동가들인 신채호, 리동휘 등에 의하여 연해주에서 조직된 반일정치단체였다.

《광복회》는 주로 동북지방과 연해주지방에서 여러 학교들을 세워 청소년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무장시키며 무장활동인재를 키우는 한편 국내에까지 활동범위를 넓혀 군자금모집과 친일파, 민족반역자, 악질지주들을 습격처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중광단은 1911년에 서일 등이 중국동북지방에서 이전의 의병들을 묶어세워 조직한 반일정치단체였다.

중광단은 무장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였지만 관할지역안의 청년들속에서 애국심을 심어주고 군사훈련을 진행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그후 독립군운동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반일정치단체들은 국내와 중국, 연해주지방은 물론 일본에서도 조직되였다.

일본에 있는 애국적류학생들과 지식인들은 학우회, 조선학회 등을 뭇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류학생들과 동포들속에 반일애국사상을 심어주었다.

한편 이 시기 애국문화운동자들도 청소년들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출판, 국문활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 시기의 교육활동은 서당, 사립학교, 야학들을 통하여 진행되였는데 특히 서당을 통한 반일교육에 큰 힘을 넣었다.

그것은 일제가 사립학교들을 강제로 페쇄하고 주되는 탄압대상으로 삼고있은 반면에 서당이 상대적으로 적들의 감시가 덜미치는 사정과 관련되였다.

신채호, 박은식을 비롯한 애국문화운동자들은 국내에서 일제가 언론, 출판활동의 자유를 빼앗은 조건에서 해외에서 언론, 출판활동을 벌리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책들을 써내는 한편 신문, 잡지들을 발간하여 인민들을 애국정신으로 교양하였다.

박은식은 1914년에 쓴 《한국통사》에서 자기는 나라가 망한 시기의 비통한 력사를 썼지만 앞날의 동포들은 독립한 력사를 쓸것을 바란다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이러한 책들과 신문, 잡지들은 일제의 온갖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널리 배포되였다.

3.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투쟁

이 시기 반일운동에서는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일제의 강점하에서 그 누구보다 비참한 처지에 있던 로동자들은 아직 힘이 미약하였으나 가장 가혹한 민족적, 계급적억압을 받아왔기때문에 투쟁력이 강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파업투쟁을 자주 벌렸다.

1912년～1919년까지의 사이에 로동자들이 일으킨 파업건수만 해도 170여건에 달하였으며 거기에 참가한 로동자수는 1만 8천여명에 달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은 점차 폭동적진출로 발전하였다. 로동자들은 로동단체들도 무어 로동자들을 깨우쳐주며 호상간의 단결을 강화하여나갔다.

로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농민들도 힘차게 투쟁하였다.

1918년 3월 강원도 철원군의 수백명의 농민들이 들고일어나 면사무소를 습격하였으며 6월에는 함경남도 문천군(오늘의 강원도 문천시)의 수백명농민들이 일제침략군과 헌병들을 들이쳤다.

한편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벌리였다.

제33절. 3.1인민봉기

1. 3.1인민봉기의 폭발과 확대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 만세!〉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전민족적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날입니다.》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밑에서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아온 조선인민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오다가 드디여 주체8(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반일봉기를 일으켰다.

3.1인민봉기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에 의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면밀히 준비되여왔으며 여기에 천도교, 그리스도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인사들이 합세하여나섰다.

그들은 고종왕의 장례날인 3월 1일에 전국의 주요도시들에서 일제히 독립선언서를 읽고 봉기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봉기당일에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이 군중의 폭동적진출에 겁을 먹고 물러섬으로써 투쟁은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의 주도하에 막을 열었다.

3.1인민봉기의 불길은 먼저 평양과 서울에서부터 타올랐다.

평양에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적영향을 받은 평양숭실중학교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놀았다.

이날 낮 12시에 울리는 종소리를 신호로 하여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에 있는 숭덕녀학교운동장에 모여들었다.

청년학생대표가 독립선언서를 읽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자 군중들은《조선독립 만세!》,《일본인들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렬이 거리로 떨쳐나오자 로동자, 학생, 사무원들과 점원, 지어 보통학교의 어린 학생들까지 뛰쳐나와 대렬은 삽시에 10여만명에

이르렀다.

대중적인 반일독립만세시위투쟁이 벌어지자 일제놈들은 경찰대와 군대들까지 동원하여 도처에서 군중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원쑤들과 육탄으로 대항하였다. 한편 일제의 경찰서를 둘러싼 군중들은 돌로 유리창을 까부시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갇혀있던 60여명의 애국자들을 구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일가분들을 따라 만경대와 칠골인민들도 대렬을 지어 평양성으로 밀려갔다. 수천명의 군중들은 징과 북을 울리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보통문쪽으로 밀려갔다.

그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여덟살의 어리신 나이에 시위대렬에 참가하시여 만세를 부르시며 보통문앞까지 가시였다. 이날 우리 민족의 류혈을 처음으로 목격하신 어리신 대원수님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번지시였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만경대와 칠골인민들은 홰불을 들고 만경봉에 올라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런 투쟁이 여러날 계속되였다.

어리신 대원수님께서는 이때에도 군중들에게 마실물과 홰불로 쓸 겨릅대를 날라가시느라고 바쁘신 어머님을 따라 만경봉에 올라 만세를 부르시며 밤늦게까지 계시다가 내려오군 하시였다.

3월 1일 서울에서는 평양에서보다 좀 뒤늦게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부르죠아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투항주의적인 행동을 박차고 반일항쟁에 나섰다.

오후 2시 30분 서울 탑동공원에 모인 군중들앞에서 청년학생대표가 독립선언서를 읽고 조선이 자주독립국가라는것을 선포하자 군중들은 일시에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이날 고종왕의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수만명의 군중이 결사적인 시위를 벌렸다.

총독 하세가와놈은 시위를 탄압하기 위하여 서울시안의 헌병경찰은 물론 룡산주둔 제20사단까지 동원하였다. 놈들은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면서 시위군중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서울의 거리들은 삽시간에 피바다가 되였다.

그러나 시위자들은 앞대렬이 쓰러지면 그 뒤대렬이, 뒤대렬이 쓰러지면 그다음 대렬이 앞장서나가면서 전진하였다.

3.1인민봉기의 불길은 평양, 서울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지에서도 세차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3월 중순에는 3.1인민봉기의 파도가 전국 13도를 모두 휩쓸게 되였다.

강동에서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와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에 속한 200여명의 성원들이 앞장에 서서 반일봉기를 일으켰다.

경기도 수원군에서는 700여명의 군중들이 들고일어나 일제경찰관주재소를 들이친 다음 수원방면에서 달려드는 일제군대, 경찰놈들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평안북도 정주에서는 봉기군중과 일제놈들사이에 치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일제놈들의 총탄에 맞아 500여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으나 인민들은 굴하지 않고 싸웠다.

한 농민은 일제헌병놈의 칼에 한팔이 떨어져나가자 머리에 동여맸던 수건을 풀어 피로 적신 다음 기발마냥 흔들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서울의 한 녀학생은 일본군대놈이 내려치는 칼에 기발을 든 바른팔이 잘리우자 왼손으로 기발을 들고나갔으며 왼팔마저 잘리웠을 때에도 시위대렬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철산군의 열세살 나는 안정명소년은 적의 흉탄에 맞고 칼에 찔리여 숨을 거두는 순간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에게 《나의 가슴에 상처가 열인지 백인지 계산해주시오… 불을 지르리라, 나의 가슴에 끓던 피의 방울방울이 불꽃이 되여 왜놈의 나라를 태워버리리라.…》고 절규하였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갇히운 나어린 보통학교 학생은 일제경찰이 심문하는 기간에도 계속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다.

경찰이 왜 그러는가고 묻자 《물이 병에 차있으면 움직이기만 하여도 물이 넘는것과 마찬가지로 만세가 가슴속에 꽉 차있으니 조금 움직여도 만세소리가 절로 나오는것이 물과 비슷하다. 나로 하여금 만세 부르는것을 멈추게 하려면 나의 몸을 안정시키라.》고 호령하였다.

충청남도 천안군에서 반일봉기의 앞장에서 싸우다가 일제경찰에게 체포된 16살의 녀학생인 류관순은 재판정에서도 재판의 부당성을 견결히 단죄하였으며 감옥안에서도 굴함없이 싸우다가 희생되였다.

3.1인민봉기는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 일본에 있는 동포들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2. 일제의 야수적만행, 3.1인민봉기의 실패

조선에서 전인민적반일봉기가 일어나자 일본정부에서는 긴급모의를 벌리고 조선 총독놈에게 온갖 수단을 다하여 단호하게 봉기를 진압할데 대한 지령을 주었으며 침략군무력을 급히 증파하였다.

그리고 헌병, 경찰과 재향군인, 소방대까지 인민탄압에 총동원하였다.

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닥치는대로 거리와 마을을 불사르고 맨주먹의 시위군중들에게 사격을 퍼부었으며 죄없는 인민들을 학살하였다. 야수같은 일제놈들은 애국자들을 불태워죽이거나 산채로 파묻어죽였으며 형틀에 매여달고 팔다리에 못을 박아죽이거나 작두로 목을 잘라죽이였다.

1919년 4월 중순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 기여든 일제침략군놈들은 300여명의 마을사람들을 몽땅 교회당에 강제로 모이게 한 다음 밖으로 문을 닫아매고 총탄을 마구 퍼붓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무리로 쓰러지는 가운데 한 녀인이 어린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창밖으로 간신히 내보냈으나 피에 주린 일제승냥이놈들은 그 아이마저 총칼로 찔러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악귀같은 일제놈들은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교회당과 그 주변의 살림집들을 불태워버리였다.

일제놈들은 이와 같은 야수적인 방법으로 수원군에서만도 1 000여명의 조선사람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전국적으로 놈들의 총칼에 쓰러진 사람은 10여만에 달하였다.

3.1인민봉기때 미제는 일제와 한짝이 되여 우리 인민의 독립운동을 악랄하게 반대해나섰다.

미제는 조선에서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그것이 《부질없는짓》이라고 우리 인민을 중상모독하고 일본이 조선에《일찌기 볼수 없었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다고 하면서 일제놈들에게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총칼로 사정없이 족쳐야 한다고 부추기였다.

3.1인민봉기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의하여 결국 목적을 이룩하지 못한채 실패하고말았다.

3.1인민봉기가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운동이 탁월한 수령, 혁명적인 계급과 혁명적인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한데 있었다.

3.1인민봉기가 실패한 다른 하나의 원인은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제한성과 숭미사대주의에 있었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 19세기 중엽부터 수십년동안 계속되여오던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시기는 끝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3.1인민봉기는 비록 실패로 끝났으나 그것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커다란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3.1인민봉기의 력사적의의는 우선 이 운동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열렬한 애국적투지와 불굴의 기개를 온 세상에 보여준데 있다.

3.1인민봉기의 력사적의의는 또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비상히 높여준데 있다.

3.1인민봉기의 력사적의의는 또한 당시 다른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도 적지 않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는데 있다.

제3장.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운동

제1절. 일제의 교활한 문화통치

3.1인민봉기후 일제는 무단통치대신에 문화통치의 간판을 내걸고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문화통치란 총칼을 휘둘러 무지막지하게 통치하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에게 일정한 권리도 주고 자유도 주면서 좀 부드럽게 통치한다는것이였다.

일제가 문화통치의 간판을 내걸게 된것은 놈들이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커다란 타격을 받은데로부터 조선인민과 세계 여론을 속여서 식민지통치를 쉽게 하자는데 있었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을 내걸면서 조선인민에게 무슨 큰 자유나 주는듯이 떠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식민지통치는 더욱 악독하여졌다.

일제는 무엇보다먼저 총독을 일제의 륙해군대장가운데서만 임명했는데 이제는 군대출신이 아닌 민간인으로도 임명할수 있다고하였다.

그러나 이것부터가 거짓말이였다. 그후 식민지통치 전기간에 여러번 바꾼 총독놈은 다 륙해군출신의 군대우두머리들이였다.

일제는 또한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꾼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경찰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는것이였다.

놈들은 경찰기관과 경찰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기마경찰, 특별경찰, 해상경찰 등을 더 불구어 온 나라를 경찰망으로 뒤덮었다.

그리고 비밀경찰제도와 밀정망을 강화하여 조선사람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탄압할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또한 이른바 민의창달이라는 기만적구호밑에 친일주구들을 긁어모아 식민지통치의 기둥으로 삼고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으며 반일투쟁대오를 안으로부터 허물어버리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놈들은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들을 몇종 내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주는듯이 하면서 조선인부르죠아상층을 동원하여 제놈들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찬양하게 하며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자는것이였다.

일제는 이와 같이 허울좋은 문화통치의 간판을 들고 겉으로는 조선에 그 무슨 복지시대라도 온것처럼 떠들면서 안으로는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것은 일제가 1925년에 조작한 악법인 치안유지법이 잘 말하여준다. 놈들은 이 악법을 휘둘러 수많은 조선인민을 잡아가두고 탄압하였다.

1922년에 일제가 조선사람을 잡아간 건수는 13만 8천여건이였다면 4년후인 1926년에는 26만여건으로 늘어났다.

일제는 국외에서도 조선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중국동북지방에서는 중국반동군벌들과 미쯔야협정을 꾸며내여 조선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일본에서는 1923년 9월 간또 대지진때만 해도 2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때 도꾜부근에서만도 6천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거나 생매장하여 죽이였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간판밑에 경제적으로도 략탈과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산업을 독차지하고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갔다. 유명한 수안과 운산금광을 독점하고 조선로동자들을 마소처럼 부려 막대한 량의 금을 략탈해갔으며 수많은 철광석과 석탄, 귀금속들을 빼앗아갔다.

일제는 농촌수탈도 강화하였다.

일제는 1922년～1926년사이에 한해에 평균 434만여섬의 쌀을 략탈해갔다면 1927년～1931년사이에는 평균 661만섬의 쌀을 략탈해갔다.

땅도 떼우고 쌀도 빼앗긴 조선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버리고 중국동북지방으로, 일본으로 정처없이 떠나갔다.

일제는 문화분야에서도 식민지노예교육과 민족문화말살정책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조선사람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킬 사립학교도 세우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미 있던 학교들을 온갖 구실을 붙여 문을 닫게 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문화통치는 조선인민과 일제와의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다.

제2절.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쇠퇴

3.1인민봉기를 계기로 부르죠아민족운동은 전면적으로 쇠퇴몰락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것은 독립군운동이 흐지부지되였으며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상층분자들이 반일독립운동을 집어치우고 일제의 품속으로 기여들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매국배족적인 책동을 감행한데서 나타났다.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전면적쇠퇴몰락은 우선 독립군운동이 와해되여간데서 나타났다.

독립군운동은 1910년을 전후하여 중국 지엔다오(간도)지방과 로씨야 연해주지방에 망명한 일부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준비사업이 진행되여왔다.

독립군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3.1인민봉기직후 독립군부대들을 뭇고 반일의병운동의 계속으로서 무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지엔다오지방에서는 홍범도의 조선독립군, 안무의 대한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등 여러 독립군부대들이 조직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역시 지엔다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한족회, 대한광복단 등 많은 독립운동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이와 같이 조직된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들은 많은 경우 이러저러하게 서로 련계를 가지면서 활동하였다.

독립군부대들은 국외에서와 함께 국내에도 여러차례 들어와 일제기관들과 일제침략군병영을 습격하였다.

1919년 8월 홍범도는 200여명의 독립군을 이끌고 국내에 들어와 갑산, 혜산 등지를 오가면서 여러번 일제침략군의 병영을 들이쳤으며 10월에는 강계, 만포 등지를 기습하여 수많은 일제침략군들을 족치였다.

1919년 봄에는 연해주에서 리동휘 등이 독립군을 뭇고 국내에 들어와 일제침략군을 족칠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독립군의 활동이 강화되자 일제는 제1차 토벌작전으로 1920년 여름에 왕칭현 펑우동(봉오골)에 수많은 침략군을 들이밀었다. 이때 홍범도독립군과 다른 독립군부대는 련합하여 적들을 유인해내다가 불벼락을 들씌워 120여명을 살상하였다.

여기서 참패한 일제는 둥만각지에서 대대적인 조선사람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20년에 일제는 3만여명의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6 000여호

의 집을 불태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경신년대토벌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학살사건이다.

이해 10월 21일 화룽(화룡)현 칭산(청산)리에서 독립군과 일제 토벌대와의 치렬한 격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적련대장놈을 포함한 10여명의 장교들과 수백명의 일제침략군을 소멸하였다.

그후 독립군은 일제의 토벌공세가 더욱 강화되자 허이룽(흑룡)강연안의 로중국경지방으로 옮겨갔다. 여기에서 력량을 정비해가지고 본격적인 싸움을 벌리자는것이였다.

그러나 독립군은 1921년 원동지방에서 벌어진 독립군부대들사이의 류혈적무장충돌사건인 흑하사변을 계기로 다시 추서지 못하고 독립군운동은 흐지부지되고말았다.

한때 일제침략군과 큰 싸움도 벌리면서 힘차게 벌어지던 독립군운동이 이렇게 와해된것은 우선 탁월한 령도자의 지도를 받지 못한 결과 독립군안에서의 세력싸움으로 일제침략군과 싸울 힘이 진해졌기때문이다.

또한 독립군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성원을 받지 못한 결과 물우에 뜬 기름방울신세가 된데 있었다.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전면적쇠퇴몰락은 다음으로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상층부들이 3.1인민봉기후 더욱더 매국배족의 길로 나간데서 나타났다.

한때 자신을 애국지사라고 떠들어대던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일제가 문화통치의 간판을 들고나오자 그에 기대를 걸고 독립운동을 집어치웠다. 그들은 민족개량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졌다.

민족개량주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실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그밑에서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민족성을 개량하며 민족의 자치를 실현하면 독립이 저절로 온다고 하는 반동적부르죠아사상이였다.

한편 해외에 있던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상층부들은 1919년 4월에 중국 상하이(상해)에서 이른바 림시정부라는것을 꾸며내고 그안에서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들을 이루고 권력싸움을 벌리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큰 나라들에 조선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구걸하러 다니는 사대주의망동도 부리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독립운동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돈과 값진

물건을 동포들로부터 빼앗아 저들의 배를 채웠다.

이처럼 부르죠아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부패타락과 매국배족행위는 독립군운동의 와해와 함께 우리 나라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쇠퇴몰락을 가져왔다.

제3절.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과 초기공산주의운동

1. 3.1인민봉기후 대중운동의 장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시기는 종말을 고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3.1인민봉기후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차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 시기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급속히 장성하면서 수많은 로동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 녀성단체가 조직되고 대중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였다.

1920년 4월에 조선로동공제회가, 1924년에는 조선로농총동맹이 조직되고 각지에 농민단체로서 소작인조합, 농우회, 농민공제회가, 청년단체로서는 조선청년총동맹이 조직되였다.

이러한 대중단체들이 조직되면서 1923년～1925년사이에 서울고무공장, 평양양말공장, 군산정미공장, 평양인쇄공장에서 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이 벌어졌다.

농민들도 1924년 황해도 재령나무리벌농민들의 소작쟁의와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농민들의 투쟁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투쟁을 벌리였다.

청년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노예교육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처럼 3.1운동후 여러 대중단체들이 조직되고 그에 의하여 많은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으나 그것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통일적지도를 받지 못하여 종국적으로는 승리할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대중운동의 장성은 그것을 통일적으로 옳게 지도

할수 있는 당의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2. 초기공산주의운동

3.1인민봉기를 통하여 부르죠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수 없다는것을 절감한 선진적인 애국지사들은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인 맑스—레닌주의를 급속히 보급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고 로동운동이 장성하는 과정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의 창건은 대중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그러나 초기공산주의운동은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우선 공산주의자들이 대중과 리탈되여 령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면서 실지 혁명투쟁에 대중을 불러일으키지 않은것이였다.

다음으로 그 제한성은 공산주의운동안에서 발생한 종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것이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종파주의가 발생하게 된것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하에 로동운동이 앙양되고 맑스—레닌주의가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던 때에 부르죠아지, 소부르죠아인테리, 몰락한 봉건귀족, 량반출신인테리들이 맑스—레닌주의간판을 들고 혁명운동대렬에 끼여들었기때문이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발생한 종파는 화요파, 서울파, 엠엘파, 서상파 등이였다.

종파분자들은 처음부터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령도권싸움을 벌리면서 공산주의대렬을 산산이 분렬시키고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말아먹었으며 사대주의를 퍼뜨리는 막대한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종파분자들은 다른 파벌을 꺼꾸러뜨리기 위해서라면 일제경찰에 반대파를 밀고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자기파의 종파적목적을 위해서는 대중운동을 일으키거나 파탄시키기도 하였다.

또 저들만이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을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다니는 놀음도 벌리였다.

이리하여 공산당은 창건된 후 조직사상적통일을 이룩할수 없었다.

한편 일제는 종파분자들의 분렬책동을 리용하여 여러차례의 검거선풍을 일으키면서 악랄한 탄압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공산당은 1928년에 해산되고말았다.

이처럼 1920년대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없었기때문이였다.

이러한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은 1926년에 벌어진 6.10만세시위투쟁이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은 3.1인민봉기후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였다.》

1926년에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범위에서 반일시위투쟁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때 리왕조의 마지막왕이였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조선사람들은 남녀로소가 모두 대성통곡하였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순종은 리왕조를 상징하고있었는데 그마저 없어지니 망국의 설음이 울음으로 터진것이였다.

군악을 울리며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군중은 더욱 슬피 울었다.

일본놈들은 기마경찰대를 출동시켜 총칼로 군중들을 탄압하였다. 소학교아이들까지도 가차없이 곤봉으로 내리쳤다.

일제의 야수적탄압만행은 우리 인민의 원한과 분노를 더욱 자아냈다.

공산주의자들은 순종의 장례식날을 계기로 전국적범위에서 반일시위투쟁을 벌리기로 계획하고 그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 비밀이 시위투쟁준비위원회에 끼여있던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일제에게 알려졌다. 반일시위준비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애국적인민들은 시위투쟁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6월 10일, 순종의 장례행렬이 서울 종로를 지나갈 때 수만명의 시민들이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렸다.

보통학교학생들까지 시위에 떨쳐나섰다.

일제군경들은 총을 미친듯이 쏘아대며 시위자들을 탄압하였다. 격노한 군중은 맨주먹으로 무장한 원쑤들을 때려눕혔다.

이날 인천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도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6.10만세시위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야말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6.10만세시위투쟁은 대렬안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의 파괴책

동과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실패하였다.

화요파는 시위투쟁을 조직하고 서울파는 방해공작을 하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종파를 극복함이 없이는 공산주의운동의 발전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도 이룩할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3. 1920년대말-1930년대초 대중운동

1928년에 조선공산당은 해산되였으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의 혁명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원산, 신흥, 단천, 광주에서의 투쟁들이다.

1929년 1월 원산로동자들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투쟁은 문평유조소로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원래부터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있던 이곳 로동자들은 일제감독놈이 조선로동자들을 때린 사건을 계기로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왜놈감독놈을 내쫓으며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자료를 내놓을것을 요구하였다.

겁을 먹은 일제는 로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석달이 지나도록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원산로동련합회에 망라된 수천여명의 로동자들은 로동련합회의 지도밑에 1만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달이나 완강한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전국의 로동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격전, 격문, 동정금을 보냈으며 대표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홍원, 회령을 비롯한 국내의 로조단체들은 물론 중국 지린(길림)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직하신 반일로동조합에 속한 한성회성원들이 원산로동련합회에 동정금을 모아보냈다.

석달동안이나 완강하게 벌어지던 원산로동자들의 총파업은 그때 다시 조직된 로동련합회지도부가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파업을 내밀지 못하고 전국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파업에 호응하여 본격적인 실력투쟁을 벌리지 못한 결과 실패하였다.

그러나 원산로동자들의 총파업은 1920년대 우리 나라 로동운동의 정점을 이룬 사변으로서 세계 로동운동사에 조선로동계급의 전투력과 혁명성을 뚜렷이 부각해놓았다.

1930년 7월 함경남도 단천군(오늘의 단천시) 농민들이 대중적투쟁을 벌리였다.

투쟁은 산림간수놈이 죄없는 농민을 마구 때리고 잡아가둔데서 시작되였다.

격분한 농민들은 일제의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파괴하였다.

그들은 대렬을 지어 군으로 들어가 집회를 열고 군청과 군경찰서를 들이쳤다. 농민들은 총을 미친듯이 쏘아대는 경찰대를 맞받아 곤봉, 낫, 삽, 곡괭이를 들고 용감하게 싸웠다.

단천농민들의 투쟁은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진압되였으나 각지 농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29년에는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10월 30일 전라남도 광주－라주사이의 기차안에서 일본남학생놈들이 조선녀학생을 모욕한것을 계기로 일어났다.

처음 광주역에서 조선학생들과 일본학생놈들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 일제경찰들은 조선학생들을 때리고 잡아가두었으며 300여명의 일본놈중학교 교직원, 학생들은 보총까지 들고 조선인학생들을 습격하였다.

조선학생 200여명은 맨주먹으로 격투를 벌려 놈들에게 보복을 안기였다.

광주의 조선학생들과 시민들의 격분은 극도에 달하였다.

11월 3일 광주학생들은 일제히 동맹휴학을 단행하고《일제를 타도하자!》,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반일시위를 벌리였다. 이날 그들은 자기들의 정당한 투쟁을 모독하는 글을 낸 광주일보사를 습격하였다. 11일에 학생들은 달려드는 일제경찰대, 소방대와 맞서 치렬한 싸움을 벌리였다.

광주학생들의 투쟁의 불길은 전국에 퍼져갔다. 각지에서 6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과 반일시위가 6개월동안이나 줄기차게 벌어졌다.

이처럼 1920년대말～1930년대초에도 대중투쟁은 세차게 벌어졌으나 옳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여 결국은 실패하고말았다.

이 시기 투쟁은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목마르게 고대하였다.

제4절. 19세기 후반기－20세기초의 문화

1. 과학과 기술

근대시기에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의학, 농학, 수학, 지리학, 력사학등이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리제마의 4상의학설

리제마는 고려의학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그는 오랜 연구끝에 사람을 몸집과 체질에 따라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의 4가지 형으로 가르고 그에 따라 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인 4상의학설을 내놓았다.

이러한 학설을 써놓은 책이 《동의수세보원》(4권)이다.

4상의학설은 상당한 치료경험과 과학적연구성과에 기초한것으로서 당시의 고려의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므로 이 리론은 국내에서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보급되였다.

4상의학설이 나온것과 함께 이 시기에 우두를 놓아 천연두(마마)를 예방하는 방법이 널리 보급되였다.

오늘은 물론 우두를 놓지 않아도 천연두를 막고있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이 의학발전에서 이룩한 큰 성과였다.

신채호, 박은식의 력사연구

근대시기에 력사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대표적인 애국적력사가들은 신채호, 박은식 등이였다.

신채호, 박은식을 비롯한 애국문화운동가들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자면 우선 자기 나라 력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립장에서 우리 나라 력사를 연구하고 해설선전하였다.

신채호는 인민들의 애국심을 키우는데서 력사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렬히 토로하였다.

《아!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의 귀에 항상 애국이란 글자가 쟁쟁하게 할가? 다만 력사로서 할지니라.

아!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의 눈에 항상 애국이란 글자가 배회하게 할가? 다만 력사로서 할지니라.

아! 어떻게 하면 우리 2천만의 손이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게 할가? 다만 력사로서 할지니라. …》

그는 력사를 떠나서 애국심을 구하는것은 눈을 감고 보며 다리를 버리고 달리겠다고 하는것과 같다고 하였으며 나라를 위하여 다리로 뛰고 목으로 노래하며 뇌로써 생각하여 머리카락이 서게 하고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것도 력사교육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열렬히 주장하였다.

그는《조선상고사》,《짤막한 조선의 이야기》,《리충무공전》,《을

지문덕전》 등 애국적인 력사책들을 많이 써서 인민들의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박은식은《한국통사》라는 책에서 일제의 강도적인 조선침략과정과 야만성을 폭로하면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고무하였다. 그는 이밖에도 많은 력사책들을 썼다.

2. 문학과 음악

문 학

근대시기 문학의 발전은 우선 그 주제에서 반침략반봉건투쟁과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을 취급한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다음으로 그것은 문학형식이 새롭게 여러가지로 발전한데서 찾아볼수 있다.

문학형식에서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형식들이 나왔는데 먼저 19세기 후반기에는 가사, 시, 민요, 참요, 동요, 구전설화, 전기작품, 우화소설, 정치소설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례하면 류린석의 시 《강화도양요》, 민요《녹두새》, 참요《가보세》, 의병가요《의병대가》, 안중근의 시 《만세가》, 전기작품인《을지문덕전》, 우화 《여우와 고양이의 문답》, 《금수회의록》 등이다.

이러한 형식에 주제내용은 반침략, 반봉건, 자주독립사상을 반영하였다.

그후 19세기말～20세기초에 새로운 문학형식으로서 신소설이 나왔다.

신소설은 고전소설에 비하여 새로운 시대의 특성을 가진 근대소설이라는 뜻이다.

대표적인 신소설작품들은《자유종》,《빈상설》,《현미경》,《구마검》 등이다.

이러한 신소설들은 락후한 봉건적인것을 비판하고 나라의 독립과 문명개화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신소설과 함께 박은식, 주시경, 신채호, 장지연 등 애국문화운동가들이 쓴 애국적인 정론, 정론적인 가사작품들도 하나의 문학작품형식으로 찾아볼수 있다. 이런것들은 당대 사회를 비판하고 나라의 독립과 인권옹호 및 문명개화사상을 고취하고있다.

이 시기 또한 새로운 문학형식으로서 창가가 출현하였다. 창가는 가사와 선률을 배합한 예술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대표적인 창가는《상봉유사》,《학도가》,《동심가》,《독립가》,

《권학가》 등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날에 서로 만나니
반가운 뜻이 은근한중에
나라생각 더욱 깊었네
언제나 언제나
독립연에 다시 만날가
…

(《상봉유사》)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기 특히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를 독립자주적이고 문명개화된 나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봉건사회의 낡은 사상과 풍속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가지도록 깨우치기 위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이것을 계몽기문학이라고 한다.

계몽가요인 창가를 포함하여 계몽기문학은 일정한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이 있으나 총체적으로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요소가 많았다.

1910년대부터는 새로운 문학형식인 자유시, 가요, 현대소설, 희곡들이 새로 발생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단편소설로서 《절교의 서한》, 《슬픈 모순》, 《개척자》, 시가작품으로서 《3.1운동가》, 《독립운동가》, 《광복가》, 《3.1만세가》, 《압록강의 노래》 등을 들수 있다.

《압록강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14살 되시던 해에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독립시키지 않고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실 때 부르신 노래이다.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젤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1920년대 전반기에는 새로운 문학조류로서 프로레타리아문학의 기치를 든 신경향파문학이 출현하였으며 신경향파문학의 발전과정에 그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이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신경향파문학작품으로서는 단편소설 《탈출기》, 《박돌의 죽음》, 《석공조합대표》 등이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들은 1925년에 결성된《카프》에 망라된 조명희, 송영, 리기영, 박세영, 박팔양 등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대표적인 작품들은 장편소설 《고향》, 《황혼》, 단편소설 《락동강》, 희곡《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시《민중의 행렬》, 《산제비》, 《진달래》 등이다.

음 악

근대시기음악발전의 중요한 특징은 내용에서 반봉건반침략적성격이 강해지고 종류에서는 창가와 창극이 새롭게 발생발전한것이다.

애국적인 인민음악작품으로 《병정가》, 《의병대가》, 《담바구타령》, 《신고산타령》, 《흥타령》, 《닐리리야》, 《3.1만세가》, 《3.1운동가》, 《만세가》, 《압록강의 노래》, 《망향가》 등을 들수 있다.

창가는 조국에 대한 사랑, 나라의 독립과 국권회복, 대중계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는데 《학도가》, 《권학가》, 《동심가》, 《한반도》, 《소년남자가》 등을 들수 있다.

창극은 음악극양식의 예술형태로서 1901년에 《협률사》라는 창극단체가 조직되면서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창극은 《춘향전》, 《심청전》 등이였다.

이 시기 민간기악음악이 발전하고 양악대가 조직되였으며 음악가양성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3.1인민봉기후의 대표적인 애국적음악가들은 홍란파, 안기영 등이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전공한 홍란파는 수많은 서정가요, 합창곡, 기악곡, 동요곡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노래들은 대부분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 비참한 현실에 대한 통절한 마음, 고향산천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담고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봉선화》, 《고향의 봄》, 《그리움》, 《옛 동산에 올라》, 《성불사의 봄》, 《입다문 꽃봉오리》, 《애수의 조선》, 《하야의 성군》 등이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리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의 봄》)

안기영의 동요곡《그리운 강남》도《봉선화》나《고향의 봄》과 같이 어린이들과 인민들의 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노래로 널리 불리워졌다.

1930년~1940년대에는《눈물젖은 두만강》,《락화류수》와 같은 노래들도 널리 불리워졌다.

조선민족의 풍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력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을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양할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조선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자면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는 물론 우리 인민의 고유한 풍습(풍속)도 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좋은 풍습들을 잘 알고 계속 살려나가야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지켜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우수한 민족성은 로동생활, 의식주생활, 민속명절과 놀이, 가족생활과 같은 여러가지 생활풍습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가지 생활풍습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민속명절때에 더 뚜렷이 나타난다.

민속명절은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좋은 옷을 입고 일정한 행사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온 특별한 날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계절과 농사철에 맞게 여러 명절들을 정해놓고 즐겁게 쇠였다. 우리 인민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립춘, 우수, 경칩, … 청명, 하지, 동지, 소한, 대한 등등의 24절기들에서 로동과 휴식에 알맞는 시기들에 명절을 정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지난날의 민속명절에는 정초의 민속명절로서 설, 정월대보름, 립춘, 봄철의 민속명절로서 일군날, 3월삼질, 여름철의 민속명절로서 6월류두, 가을철의 민속명절로서 8월추석, 겨울철의 민속명

절로서 동지와 기타 여러 명절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조상대대로 전해오던 민속명절들도 잘 쇠지만 민족최대의 명절, 인류공동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기념하는 날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이다.

오늘날 민속명절을 쇠는데서는 우리 인민의 생활양식에 맞게 설, 정월대보름, 추석과 같은 큰 민속명절들을 특별히 잘 쇠고있다.

설명절풍습

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첫날을 즐기는 명절이다. 설날이 가까와오면 집집의 어머니들은 설준비로 식구들의 설옷을 마련하였다.

지난날 남자들이 입은 조선옷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등이였고 녀자조선옷은 치마, 저고리, 속옷, 적삼 등이였다. 이러한 조선옷은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갈로 하여 매우 우아하고 소박하며 특히 녀성들의 치마저고리는 세상에 자랑할만 한것이였다.

설날 어린 아이들은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명절을 즐기였다.

설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또한 한해동안 묵은 먼지와 때를 말끔히 가셔내고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었다.

그다음 설명절준비로서 중요한것은 설음식을 마련하는것이였다.

설명절이 아닌 보통때에 우리 인민은 밥과 죽, 국, 김치, 장을 기본적인 일상음식으로 하였다.

이가운데서 장과 김치는 우리 나라의 가장 특색있는 부식물인데 특히 김치는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일등료리로 되고있다. 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평양국수나 김치에 맛을 들이면 자기 나라에 가서도 조선의 국수나 김치를 찾는다고 한다.

국수는 우리 나라 어느 지방에서나 눌러먹는데 재료에 따라 메밀국수, 밀국수, 농마국수, 만드는 방법에 따라 실국수, 칼국수, 회국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오늘은 기계로 쉽게 국수를 눌러 일상음식으로 먹지만 지난날에는 생일이나 결혼잔치때 특별음식으로 국수를 눌렀다.

펄펄 끓는 큰 가마우에 통나무로 만든 커다란 분틀을 가로질러 올려놓고 서너명의 남정들이 그우에 올라앉아 국수를 누르는 장면은 참 볼만 하였다. 한쪽에선 녀인이 국수감반죽을 하고 초록색저고리 팔소매를 걷어올린 처녀는 긴 저고리고름을 어깨뒤로 넘기고 분틀에서 내려오는 국수오리들을 긴 꼬챙이로 가마속에 고루 펴놓는다. 애들까지 벅작고아대며 분틀우에 매달려 누른 국수는 조리로 건져 찬물에 두세번 씻어 건져내는데 국수오리가 한발씩 길게 잡아올려도 끊기지 않는다. 이런 메밀국수를 유명한 김치나 닭고기, 꿩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국물에

말아놓으니 그 시원하고 달고 새큼한 평양랭면맛에 외국인들도 반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설날의 특별음식으로서는 찰떡, 설기떡, 절편, 떡국, 지짐, 수정과, 식혜, 고기구이, 당과류, 과일, 술 등이였다.

설명절은 세배(설인사)를 드리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설날아침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화앞에 꽃을 드리고 허리굽혀 인사를 올리는것으로부터 세배를 시작한다.

지난날에는 음식을 차려서 조상들에게 설인사를 드리며 차례라는 제사를 지낸 다음 세배를 시작하였다. 세배는 마을의 나이많은 어른들, 훈장(선생)들에게 항렬과 나이차례로 하였다. 아이들로부터 설인사를 받으면 로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콩강정이나 잔돈을 쥐여주고 어른들에게는 간단한 음식을 내놓는다.

설날아침의 식사는 대체로 큰집에 모여서 집안식구들끼리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는 세배군들이 찾아오면 술상 혹은 떡상으로 대접하였다.

세배를 하고 설음식을 든 다음에는 윷놀이, 장기, 널뛰기, 연띄우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와 같은 여러가지 흥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명절을 즐긴다. 그중 윷놀이는 집집마다 제일 흥성거리며 즐겁게 노는 놀이로 되고있다.

추석명절풍습

음력 8월 15일 추석은 우리 인민이 옛날부터 쇠는 명절이다.

추석이 오면 우리 인민은 올벼, 녹두, 팥, 콩 등 햇곡식을 익은것으로 골라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갔다.

추석날을 상징하는 명절음식으로는 송편을 먼저 꼽아오는데 팥, 깨, 밤, 대추 등을 속으로 넣는다. 송편과 함께 찰떡, 시루떡, 찹쌀술 등도 추석명절음식인데 그중 찰떡을 쳐먹는것도 우리 인민의 독특한 풍습이다.

찰떡은 떡돌이나 나무로 만든 큰 떡판에서 쳤다. 나무로 만든 떡판은 소구유 비슷하게 생겼다. 여기에다 시루로 쩌낸 찰밥을 쏟아놓고 량쪽에서 남정들이 나무떡메로 번갈아 내려치는데 찰기가 너무 세여 힘센 남자들도 웃동을 벗어제낀다. 이렇게 쳐낸 찰떡에 여러가지 고물을 묻치거나 꿀을 발라먹는것은 참으로 별맛이다.

추석에는 사과, 배, 대추, 포도, 밤 등 과일도 풍성하다.

추석에는 씨름, 활쏘기, 그네뛰기, 바줄당기기 등 민속놀이를 하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추석날에 조상의 묘를 찾아보며 푸짐한 음식과 여러가지 민족경기와 놀이로 즐긴다.

이밖에 우리 인민은 동지날을 옛날과 같이 팥죽(동지죽)을 쑤어먹는 날로 맞이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조선민족의 풍속에서 중요한 특징은 우리 인민이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선량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풍속이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금세기초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무전려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기 집이나 마을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는것이 조선의 풍속이였다. 이런 풍속에 대해서는 서양사람들도 몹시 부러워하였다.》

참으로 한민족끼리, 이웃간에 깊은 인정을 가지고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사는것은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의 하나이다.

우리는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동방례의지국의 미풍량속을 잘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력사(중학교 제6학년용)

2판

집 필 리인형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유창일	교 정 리유미
장 정 류명심	콤퓨터편성 김은경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 쇄 소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1판 발행 주체88(1999)년 12월 1일
2판 인쇄 주체97(2008)년 10월 13일	2판 발행 주체97(2008)년 10월 23일

교－07－435　　값 5원